

결혼 준비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기독교적 결혼 예비상담 연구

오 윤 선 교수
(Ph.D., 한국성서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결혼 준비교육 프로그램과 결혼 준비상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기독교적 결혼 예비상담 방안을 모색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한 결혼 예비상담의 중요성은 결혼 후에 예상되는 어렵고 힘든 결혼생활을 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있다. 결혼 예비상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대효과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함께 의논하여 문제요인들을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상충되는 기대감을 희망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서로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만 기대감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력과정을 통하여 계속되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해가는 방법을 알게 한다. 결혼 예비상담의 목표는 결혼생활에서 긴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각자의 자기중심적 경향을 알게 하여 서로의 요구들과 개성을 인정하고 차이점을 해결해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데 있다. 결혼은 서로의 요구들이 충족되는 하나의 관계이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 각 사람이 상대방의 요구를 채워주기 원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한 기독교적 결혼 예비상담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실현되는 결혼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심단어: 결혼 예비상담, 결혼 준비교육, 상담 프로그램, 의사소통, 기독교상담.

I. 여는 글

지난 30-40년간 우리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는 유사 이래로 이어져 온 남녀 간의 역할 분담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분담의 변화는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3년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에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2007년 통계에 의하면 12만 5천 쌍이 이혼(결혼 총 건수 34만 5천 쌍)함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혼율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혼숙려기간의 도입을 실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숙려기간 동안 이혼 전 상담을 통하여 이혼율을 줄이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결혼 전 상담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결혼할 두 사람의 현재의 관계를 점검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하겠다.

Charles Swindoll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의도, 결단 그리고 연습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하였다.¹⁾ 미래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있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시키는 것은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사회에 이혼이 보편화 되면서 자녀들 중에는 부모들의 실패한 결혼생활을 지켜본 목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 또한 그들의 실패를 되풀이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²⁾ 요즘 상담현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는 결혼을 준비해야 하거나 결혼적령기가 이미 지난 청년들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문제의 희생제물이 되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서 결혼대상자나 결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내담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결혼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청년들 또한 적지 않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다면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에서 당

황하게 되고 서로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데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게 될 것이다. 결혼 준비 부족에 대한 문제의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 청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 중에는 신앙과 아울러 결혼 충족조건을 갖춘 이상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자리 잡은 내면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 받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비부부들의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이웃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러 기독교단체와 교회에서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나 내용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초기단계에 있음을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교육과 상담이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고, 사후 프로그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생활에서 나타날 문제들을 결혼 전 기독교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는 상담의 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구 및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혼 전 상담과 결혼 예비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흡수 통합적 입장에서 기독교적 결혼 예비상담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결혼의 신학적 이해

1) 성경적 결혼의 의미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결혼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행동원리의 추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종적 권위로 삼아야

한다.¹³⁾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일곱 번에 걸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다(창1:4, 10, 12, 18, 21, 24, 3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드신다. 창세기 2장18절의 “돕는 배필”의 어의를 분석해 보면 “그의 상대방으로서의 도움”이라는 뜻이다. 창세기 2장18절에서 사용하는 도움이란 단어는 구약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출 18:4; 시121:1-2, 33:20; 단11:34; 시20:2), 이 단어들에서 사용된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도우셨을 때였다.⁴⁾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의 개념은 우열적 관계나 남성의 보조자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상대방 (counterpart)으로서의 도움을 말한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약속(covenant)은 상호 희생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7장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은 동등한 한 인격체(동반자)로서의 상호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창 2:23)이다.⁵⁾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관계는 성적 결합(창 2:24)과⁶⁾ 동반자 관계(창 2:18)를 의미하는데, 성적 결합은 결혼관계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써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성적 결합으로 다시 한 번 한 육체로 연합하려는 충동을 갖는 근거가 된다. 그와 같은 관능성은 연합(unity)과 한 몸(one flesh)이라는 용어 속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결혼을 통해 생산을 위한 성관계를 제안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담에게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말해주는 것이다.

2) 성경적 결혼의 원리

성경적 결혼의 원리는 창 2:24-25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Severance: 떠남의 원리) 그 아내와 연합하여(Permanence: 영속의 원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Unity: 하나 됨의 원리).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

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Intimacy: 친밀감)”에서 네 가지로 구분 된다.⁷⁾

첫째, 떠남의 원리이다. 성경적인 결혼은 먼저 부모를 비롯한 모든 다른 관계들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을 받던 자녀의 관계에서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관계 전환을 의미 한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최우선이 아닌 부부 관계가 최우선이 되는 일대 혁신을 의미 한다. 떠남의 원리 속에는 영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데, 아버지가 감당했던 영적 제사장 역할을 이제는 남편이 그 직분을 가지고 떠난다는 의미이다. 부모를 떠나지 못한 배우자들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의존감 때문인데 이들은 부모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분리되거나 개체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하여 부모를 떠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예비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영속의 원리이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전 생애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신다. 바울은 고전 7:10-11에서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였다.

영속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부부에게 정서적, 육체적, 그리고 재정적 안정을 제공한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영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와 헌신, 그리고 용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⁸⁾

셋째, 하나됨의 원리이다. 결혼은 완전한 의미의 하나됨을 뜻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친숙한 육체적 연합을 포함한다. 그리고 결혼생활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공통의 헌신, 공통의 목적,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는 의미이며 핵심적인 문제들에 동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넷째, 친밀성의 원리이다.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하더라’는 말씀은 서로간의 완전한 개방으로 몸과 마음 전체에 이루어지는 총체적 친밀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친밀성의 원리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허물이나 결점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밀감은 성적인 것이며 정

서적인 것인데 대개의 경우에 결혼생활에서 체험하는 성적 친밀감은 정서적 과정을 거친 뒤에야 성취될 수 있다.

3) 결혼생활의 리더십

성경의 원리에 따른 부부관계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유한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한다. 부부 간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재능이 달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22절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순종하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5장25절은 “남편에게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였다. 아내가 남편이 바라는 것을 하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남편도 아내의 요구와 바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노력한다면 서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복종을 통한 리더십을 공유할 때 창세기 2장24에서 말하는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부부의 은사에 따라서 주어질 리더십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은 재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개인의 은사나 능력에 따라 주어질 때 가장 잘 발휘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역할을 담당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 때문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한다고 해서 모든 역할에 대한 책임을 한쪽이 모두 져야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짐을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한다. 셋째는 수직적 리더십이다. 부부관계는 어떤 배우자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십에서 남편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⁹⁾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가지 리더십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결혼 준비교육 및 결혼 전 상담 프로그램 분석

1) 결혼 준비교육 프로그램 분석

기독교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 준비교육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결

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며, 결혼 후 예상되는 문제나 어려움들에 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인 차원의 활동이다. 결혼준비 프로그램 역사를 살펴보면, 1924년 Groves에 의해 “결혼 및 가정생활 준비”란 제목으로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강좌가 실시 된 이후 1930년대 초에 Merrill-Palmer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결혼 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¹⁰⁾ 최근에 미국의 ‘월로우크릭 교회’ 결혼 예비사역 (Marriage Preparation) 프로그램은 매우 체계화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¹¹⁾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이 알려지고 보편화된 대표적인 결혼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에 제시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첫째, 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체계이론과 의사소통이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장 오래되었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기술습득과 상호작용 양상에 대한 지각 기술습득 4단계로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고 공감수준에도 변화를 주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Relationship Enhancement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적 접근방법으로 행동수정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며 비교적 어려움이 없는 커플 등에게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깊은 관계를 접근시키지 못하고 장기적,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Growth Counseling for Marriage Enrichment는 인간잠재력 접근법과 결혼지향 방법이 기본이며 혼전, 신혼부부, 중년, 장년의 주기별로 다양성을 가진 프로그램이지만 제한점으로는 집약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넷째, 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gagement Program은 결혼의 어려움과 이혼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고, 장기적인 면에서 남편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아내에게는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Premarital Assessment Program은 개별 커플별로 평가

하며 교수적 상담접근법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발달적, 구조적 개념의 틀을 가지며 발달적 가족생활주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 회기에 다루어지는 내용이 너무 많은 편이고 기술훈련이 없으며, 프로그램 기간이 12주 동안 이기에 너무 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섯째, TIME은 아들과 사회 심리적 접근법을 사용하며 기본방법으로 격려를 중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일곱째, Preparation for Marriage Workship 프로그램은 1회 2시간씩 6회 동안 강의와 연습으로 이루어지며 혼전상담과 의사소통, 갈등해소, 역할기대, 가치, 인간의 성, 재정 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여덟째, Marriage Preparation Handbook 프로그램은 결혼준비, 의사소통, 갈등, 지지 체계 구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회 2시간씩 8회 이루어진다. 아홉째, A Resource Book For Instruction은 앞의 두 프로그램보다 회수가 더 많은 9회이며 시간은 동일하게 2시간이다. 프로그램 순서는 주제 소개부터 토론, 역할극, 과제 할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1〉 미국과 캐나다의 결혼 준비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참안자)	프로그램명	기간	내용
Miller, Nunnally, Wackman (1960년대 후반, 1982년 개정)	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4주	말하기 기술, 듣기 기술, 갈등 해결, 의사소통 양식.
Guernsey (1964, 1977)	(Pre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4주 (8시간 2회, 4시간 2회)	청자와 화자의 역할 연습, 배운 역할 연습, 갈등 영역에 대한 의사소통, 커플의 갈등해결.
Clinbell (1979)	Growth Counseling for Marriage Enrichment	4회	관계의 힘 인정, 확인, 성장 영역의 확인, 변화를 위한 재계약, 행동.
Markman, Stanley Floyd Guernsey (1980년대)	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gagement Program	6회 (1회에 2시간-2시간 30분)	효과적으로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 유형, 커플 간 즐거움 추구, 문제 해결, 수용과 친밀함 증진, 신뢰, 성생활.
Salt, Buckner (1983)	Premarital Assessment Program	6회 12주	커플의 데이트 역사, 개인과 커플, 목표, 역할, 요구, 가족, 육아, 재정, 친구, 오락,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가치와 성.

Dinkmeyer, Carlson(1986)	TIME	10회	책임 수용, 격려, 우선권과 가치, 정직하고 일치적인 의사소통, 선택 기술, 갈등 해결 과정 및 적용, 평등한 결혼.
Nickols, Nicklos	Preparation for Marriage Workshop	6회 (1회 2시간)	혼전 상담, 의사소통, 갈등 해결, 역할 기대, 가치, 인간의 성, 재정 관리.
British Columbia Council for the Family, 2판, 1984	Marriage Preparation Handbook	8회 (1회 2시간)	결혼 준비, 의사소통, 갈등, 지지 체계 구축, 시간과 돈을 벌고 사용하는 생활의 공유, 성생활, 헌신, 결혼 계획.
British Columbia Council for the Family	A Resource Book For Instruction	9회 (1회 2시간)	기대와 현실, 정체감과 가치, 관계에서의 역할,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친밀감), 창조적인 갈등, 성생활, 생활양식, 미래성장.

위의 9가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의사소통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갈등해결은 8개 프로그램, 성생활은 7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짐을 볼 수 있다. 이는 결혼생활에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성생활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9개 프로그램에서 **Premarital Assessment Program**이 가장 다양하고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고 다음으로는 **A Resource Book For Instru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프로그램에서 지적되고 있는 제한점으로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교육을 받는데 부담스러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특히 위의 모든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신앙적인 기초를 두지 않은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의 결혼 준비교육은 1970년 이후부터 문체 예방적 차원에서 결혼 준비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 단체에서 미혼여성이나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단체와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교육원 등에서 '혼인준비교실'을 개설하여 혼전교제 및 배우자 선택, 가족관계, 혼인생활에 필요한 법

를, 부부 성생활, 혼인준비 및 결혼예절, 부부의 대화기법, 임신과 출산, 부부심리, 결혼과 직업, 행복한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기독교 단체와 교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증가와 개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앞에서 서구에서 개발된 결혼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자기인식과 의사소통, 의사소통과 관계향상 그리고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의 향상들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²⁾ 이에 비해 백지은¹³⁾, 고선주¹⁴⁾, 정현숙¹⁵⁾ 등이 연구한 국내 일반 결혼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결혼 이해하기, 차이 또는 관계극복, 성 등 생활교육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 횟수는 4-6회 정도이며, 대상은 결혼할 예비부부이고 참가인원은 4쌍에서 20쌍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회당 시간은 일반적으로 120분 동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교회 및 기독교 기관에서 결혼 예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5기관을 선정하여 분석하면 <표-2>와 같다. 국내 기독교 기관에서 실시하는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대상자와 기간, 성 및 차이점 극복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프로그램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다만 기독교 상담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일반 결혼예비학교와 다른 점은 결혼에 대한 바른 의미 즉, 신앙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내 기독교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상당부분이 비슷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획일적인 한계점을 보이고 있기에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전문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별히 국내 기독교 프로그램에서도 서구 프로그램에서 강조되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 보여진다.

〈표-2〉 한국 기독교 결혼 예비교육 프로그램

기관	두란노(결혼예비학교)	지구촌교회	부산호산나 교회	한국가정사역연구소	기독교문화연구원
대상	결혼예비커플	약혼, 결혼예비커플	결혼예비커플	결혼을 앞둔 커플	예비부부
기간	4- 5주	5-6주	5주	5주	7주
내용	결혼의 성경적 원리,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남녀의 차이, 부부의 성, 가정경제, 부부 대화와 갈등 해소.	사랑과 결혼, 결혼예식의 의미, 혼수준비, 커플관계분석, 첫날밤의 성(性)과 성(聖), 신혼여행, 자녀계획, 피임,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재정, 신앙, 시간관리.	결혼의 성경적 원리 조별 나눔(소개), 과제발표,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남녀의 차이, 가정경제, 부부 대화.	결혼바로알기, 배우자를 이해하기, 결혼에 대한 기대와 환상, 부부의 역할과 책임, 의사소통과 갈등, 행복한 성, 특별프로그램.	기독교적 정체감형성, 언약으로서의 결혼, 하나 됨을 위한 떠남, 영성적 친밀성,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 기독교적 헌신형성.

2)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 분석

결혼을 앞 둔 기독교 청년들에게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은 결혼 후에 부부의 삶의 질과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은 결혼할 두 사람의 현재의 관계를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며 안정된 결혼생활과 결혼적응에 도움이 되는 면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가족학자 Olson¹⁶⁾은 결혼 전에 있는 문제들이 결혼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기에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이라고 말했고, Smith¹⁷⁾도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 후 예상되는 가족 관계의 문제점들을 미리 탐색하여 잘 대처하도록 대처방법과 기술들을 획득하는 기회라고 하였다. 결혼을 앞 둔 예비 부부들이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혼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결혼 전에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혼생활에 들어간다면 증가하는 이혼율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 자료를 보면 <표-3>과 같다.¹⁸⁾

〈표-3〉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 분류표

영역	주제 요인	문헌언급 횟수	문헌언급 빈도순위	설문경과 빈도순위	영역	주제 요인	문헌언급 횟수	문헌언급 빈도순위	설문경과 빈도순위	
개인내적 영역	정서적 문제들	79	1	5	철학적 영역	정서적 문제들	69	1	1	
	가족 배경	39	2	6		사랑의 정의	25	2	2	
	가치	31	3	4		이상적인 결혼	13	3	6	
	관계 기술들	29	4	3		이혼/재혼	11	4	4	
	결혼의 동기	25	5	1		기본적 생활 철학	10	5	3	
	개인적 습관	8	6	2		생활 철학	8	6	7	
상호관계 영역	성 생활	101	1	11	전통존중	6	7	5		
	재정	83	2	2	기타	정서적 문제들	26	1	1	
	의사소통	81	3	3		결혼 연령/성숙	18	2	5	
	역할	72	4	10		카운슬링	17	3	2	
	파트너 요구인지	65	5	5		사회적 유사성	16	4	4	
	자녀 양육	55	6	6		결혼 예식	15	5	8	
	위기/갈등	54	7	4		물질 남용	12	6	3	
	동반자 의식	42	8	1		결혼에 대한 준비	9	7	6	
	생활 스타일	37	9	9		결혼 관련된 법률상식	8	8	7	
	레크리에이션	34	10	12		죽음	6	9	9	
	시간에 따른 변화	31	11	13		도박	2	10	10	
	남녀의 차이	18	12	14		기술	의사 소통 기술	61	1	1
	의사 결정	15	13	7			문제 해결 기술	52	2	4
	시간 우선순위	15	14	8			풍요 기술(enrichment)	19	3	8
재혼	14	15	15	재정적 관리 기술			17	4	5	
외적 영역	인척 관계	59	1	4	수용하는 기술		9	5	2	
	고용/직업	42	2	5	의사 결정 기술		7	6	9	
	친구	24	3	8	남편/아내로서의 기술		5	7	3	
	교육	23	4	7	인지 기술		2	8	6	
	주거시설	19	5	1	자녀 양육 기술		2	9	7	
	사회생활	17	6	6	변화 수행 기술		1	10	11	
	결혼생활 경제	16	7	3	성적인 기술 (Sexual)		0	11	10	
	교회활동	1	8	2						

이 연구의 결과는 R. H. Ferris가 약 50년간 결혼 상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발표된 학위논문과 책을 비롯해서 192가지나 되는 다양한 문헌을 중심으로 종합한 것이다. <표-3>에 나타난 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문서상 언급 빈도별로 분석해 보면 '개인 내적 영역'에서는 정서적인 문제들(79), 가족배경(39) 순이었고, '상호 관계적 영역'에서는 성생활(101), 재정(83), 의사소통(81) 순이었다. 그리고 '외적 영역'에서는 인척관계(59), 고용/직업(42)순이었으며, '철학적 영역'과 '기타'에서는 정서적 문제가 철학적 영역에서는 69회, 기타에서는 26회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기술'에서는 의사소통 기술(61), 문제해결기술(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은 개인적 영역이나 철학적 영역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 정서문제들이 가장 많이 취급되고 있고, 상호관계에서는 성생활과 재정 문제가 실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상호관계를 비롯해서 기술문제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한 프로그램 요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결혼생활의 문제요인이 물리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에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이 1930년부터 논의되었지만 국내에서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1970년 말부터였고, 실제적인 프로그램 연구와 효과검증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화 되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발표된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 연구 실태를 보면, 정미향, 김득성이 결혼 전 관계향상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검증을 실시하였고¹⁹⁾, 김광률이 기독교인의 결혼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으며²⁰⁾, 김미경과 송정아가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결혼 전 상담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실시한 논문을 발표 하였다.²¹⁾ 이 가운데 2006년에 발표된 김미경과 송정아의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하면 <표-4>와 같다.

김미경과 송정아가 실시한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이 프로그램은 예비부부에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준비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상대방

에 대한 이해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과 상담이 병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8주 동안 회기별 2시간 30분으로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서 실험집단 남녀 각각 6명, 통제집단 남녀 각각 6명 총 24명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실시한 결과 만족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²⁾ 이 프로그램이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성에 대한 태도와 재정관리를 비롯해서 개방성과 상호신뢰에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프로그램 자체는 신앙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김미경, 송정아보다 앞서 발표된 김광률, 정미향과 김득성을 포함해서 결혼 예비상담에 관한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결혼 예비학교 프로그램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회기수도 많았지만 내용면에서는 결혼 예비학교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본다. 이는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좀 더 구체화된 결혼 전 예비교육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결혼 예비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기독교 예비부부들에게 적용시키는데는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비부부들을 위한 결혼 예비상담을 위해서 이론과 실재를 중시한 모델 제시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기독교 예비부부를 위한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상담 절차, 과정 그리고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4〉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 활동내용

회기	제목	활동 내용
1	Orientation 및 친밀감 형성	1. 프로그램 소개와 참가자들 소개 2. 프로그램 활성화와 촉진들을 위한 활동 3. 참가 동기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점 나누기 4.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사전검사 실시
2	결혼의 이상과 현실	1. 결혼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결혼의 의미 발표 2. 결혼에 대한 질문지 작성 후 나누기 3. '떠남'의 사례 연구 4. 배우자와 '연합' 하여 하나 됨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파트너와 나누기

3	원가족 이해하기	1. 가족관계 질문지, 성장배경 분석 질문지를 작성하고 커플끼리 나누기 2. 가계도 작성하고 커플끼리 나누기 3.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본다. 4. 새로운 가족이 될 친족의 존수, 호칭, 관계 및 역할 알아보기
4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및 수용	1. 8가지 선호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과 파트너의 유형에 대해 자가 추측을 해본다. 2. 자가 추측한 것과 MBTI 검사 채점한 것을 대비해 보도록 한다. 3.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해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집단에서 나누기 4. 성격 유형에 따라 서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다음 집단에서 나누기
5	효과적인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걸림돌 경험 및 빈번히 사용하는 걸림돌 고르기 2. Satir의 의사소통 유형 실습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 찾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실습 3. 자신의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는 시간과 축복의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경험하게 한다.
6	갈등 해결하기	1. 갈등대화 척도 질문지 작성 후 파트너와 바꾸어 나누기 2.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 나누기 3.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패턴 점검 4. 건설적인 갈등해결 방법과 활용법을 연습하기 5.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고 시행한다.
7	아름다운 우리의 성	1. '성'에 대한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들을 나누기 2. 성에 대한 자신의 태도 점검 질문지 작성 후 커플끼리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나누기 3. 성기관의 구조와 명칭, 성행위나 느낌에 대한 성지식과 성태도 점검 4. 성관련 시청각 자료를 보고 자신의 느낌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결단 나누기 5. 신혼 첫날밤에 대한 orientation
8	가정경제	1. 지난 시간 내준 과제 '내가 소망하는 결혼의 모습'을 집단에서 나누기 2. 가정경제에 관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와 나누기 3.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해야 할 경제적 문제가 무엇인지 커플끼리 나누기 4. 가정경제에 대한 장기, 단기 목표 작성하기 5. 약혼식 및 결혼식에 드는 비용 작성하기 6.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평가서 작성 및 사후검사

3. 기독교 결혼 예비상담

1) 기독교 결혼 예비상담의 필요성

결혼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고,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간구하기 위한 결혼 예비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Gary

R. Collins는 6가지로 피력 하였다.²³⁾ 첫째,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환멸을 예상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결혼생활에서 긴장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아중심적 경향들 즉,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부분들을 밝히고 의논함으로써 문제의 요소들을 미연에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게 하는데 있다. 셋째, 서로의 역할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와 기대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오늘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는 결혼의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 상담자 앞에서 성경에 비추어 주의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도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성적인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적 고찰이 필요하다. 여섯째,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혼의 요소들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서 결혼 예비상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여러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결혼 예비상담을 필수로 하고 있고 오하이오 주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 결혼 예비상담을 받을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⁴⁾ 따라서 많은 미국의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결혼 예비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 예비상담을 통하여 예비부부들이 결혼이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알고 함께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알게 될 때, 그들이 결혼생활을 통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될 경우 결혼 또는 가족 관계증진 프로그램과 결혼 치료에 참여하기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²⁵⁾ 그러므로 예비부부들의 결혼 예비상담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예방의학이 병을 예방하여 사람들을 건강한 쪽으로 유도하듯이 혼전 상담은 결혼 및 가정 생활의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여 건강하고 만족스런 결혼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 주는데 있어서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²⁶⁾

2) 결혼 예비상담의 목표

미래에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실시되는 결혼 예비상담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예비상담은 결혼을 위한 준비에 대한 평가를 가지게 하는데 있다. 즉, 왜 결혼해야 하는가? 결혼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일 사회적 압력이나 허황된 동기 또는 충동 등에 의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면 좋은 관계를 정립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혼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의 신앙, 가치관,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등 서로의 관심사와 배경이 자신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나이 차이와 구혼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결혼에 대한 태도로써 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결혼생활에서 각자 다른 역할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외부적 환경으로써 부모의 반대나 오랜 시간 격리되어서 살아야 할 형편 등 여러 외부적 조건을 고려하고 있는가? 특별히 앞의 고려 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도에서 일치점을 보고 있는가? 등을 숙고해야 한다.

둘째, 자기평가를 지도한다. 결혼 예비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장점과 보완점을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과 보완점을 상담자 앞에서 보다 명확하게 투시해 보려는 노력을 가지게 될 때 결혼생활을 보다 원만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남녀가 교제하는 기간에 손상된 감정을 위장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견 차이를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결혼 전에 서로 이해하고 차이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성경적 결혼관을 생각하게 한다. 결혼 예비상담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을 통한 이상적인 결혼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별히 엡 5:21-6:4, 골 3:16-21, 고전7장 그리고 벰전 3:1-7에 계시되어 있는 이상적인 결혼상에 대하여 주의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성경적 결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에 서로를 섬기는 성숙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혼수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예상되는 스트레스 극복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터득하게 한다. 결혼은 서로 다른 개체의 만남에서 시작되기에 적응문제가 따른다. 많은 잠재적 스트레스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의 논의와 정보제공을 하고 결혼

전에 자발적이고 정직하며 민감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²⁷⁾

3) 결혼 예비상담자의 태도

결혼 예비상담을 통과여 효과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결혼 예비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 가운데 첫 번째는 진실성이다. 예비부부들이 상담자의 지도를 수용하려면 상담자를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진실성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상담자의 행동이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상담에 대한 신뢰감은 사라질 것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진지하고 긍정적이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숙한 태도로 일관할 때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가지게 할 것이다. 상담자 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감 및 수용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예비부부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상담자가 예비부부들의 긍정적인 의도를 인정해 주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혹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결정을 내리고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대상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수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상담자가 수용적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예비부부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결혼 예비상담자는 언제나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복음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만약 예비 부부들이 상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한다면, 상담자는 그들에게 사랑의 태도로 말하고 설명하여 다른 곳으로 의뢰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상담과 치료는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예비부부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얻은 정보와 검사나 기타 다양한 조사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과 부부 간에 주어질 예상문제, 그리고 현재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능력을 가져야 한다.²⁸⁾

4) 결혼 예비상담 과정

결혼 예비상담 방법은 상담학자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내담자의 상황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모범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정정숙은 '성경적 가정사역'에서 Howard S. Eyrich의 모델을 중심으로 결혼 예비상담 방법을 제시하였다.²⁹⁾ 정정숙이 제시한 상담 방법은 신앙적인 측면이 강조된 상담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필요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흡수 통합론적 입장에서 Gary R. Collins³⁰⁾와 Everett L. Worthington³¹⁾ 그리고 Deloss D. Friesen, Ruby M. Friesen³²⁾의 결혼 예비상담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상담 과정을 재설정 한다.

상담기간에 있어서 Everett L. Worthington은 6-12주를 제시하였고, Gary R. Collins는 3-6개월의 간격으로 5-6회를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4-6주를 전후하여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담 시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0분을 1회로 하되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상담 장소는 안정된 분위기에서 일관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환기가 잘되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담 전체 흐름의 과정은 초기, 중기

후기로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전후 과정으로 준비와 추후상담이 포함 된다.

(1) 결혼 예비상담 전 준비과정

결혼 예비상담 전 준비과정은 상담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상담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비부부들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이다. 점검은 신앙생활에서 부터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점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에 따른 기초자료와 더불어 검사 도구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Howard S. Eyrich은 제1회 때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Everett L. Worthington은 상담 회기에 오기 전에 검사 도구를 실

시하였다. 많은 임상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상담과정에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 오기 전에 평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³³⁾ 평가도구에 있어서는 Howard S. Eyrich가 추천하는 TATA(Taylor-Johnson Temperament Analysis)³⁴⁾가 있는데. 이 도구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결혼 예비상담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서, 총18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의 성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재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써 Everett L. Worthington이 추천하는 도구인 PREPARE(Premarital Personal and Relationship Evaluation)³⁵⁾와 PAIR(Personal Assessment of Intimacy in Relationships Inventory)³⁶⁾이 있다. PREPARE는 125문항으로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답은 컴퓨터로 채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AIR은 다섯가지 유형의 친밀성을 측정하고 각 배우자들이 바라는 유형과 실제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PAIR 검사지는 수작업으로 채점할 수 있고 해석지에 그림으로 그 결과를 나타낸다.

한국의 예비부부들을 위한 검사도구는 위의 도구들과 아울러 성격유형을 위해서는 MBTI, 임상문제를 위해서는 MMPI, 부모와 성을 위한 문제 등을 위해서는 SCT 등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평가의 영역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다면 개인적인 성격과 영적 발달,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그리고 헌신 등이다.

(2) 결혼 예비상담 과정

본 연구에서 결혼 예비상담 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Everett L. Worthington의 6단계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Gary R. Collins의 상담기법을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각 단계는 상담의 진전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과정은 항상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서로 겹쳐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상담에서는 순환될 수도 있다. 각 단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이해와 신뢰관계 형성

1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 단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진실성, 공감 그리고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1단계에서 상담자는 적극적 경청자의 태도를 취하며 신뢰의 끈을 확보한 후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비롯한 신앙적인 측면에 대해서 깊은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 내담자 평가와 문제를 생산적으로 생각하게 함

2단계에서 상담자는 1단계와 같이 긍정적인 경청기법과 태도를 유지하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다. 평가에 있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찰된 약점을 말하기 보다는 내담자 스스로 약점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비부부들의 강점과 약점을 다룸에 있어서도 서로의 약점이나 차이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칭찬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다시 생각하도록 돕는다. 예비부부들이 서로 발견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상담 시간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3단계에서 다룰 내용을 계획하게 한다. 2단계에서 기독교 상담자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적용하여 평가하게 해야 한다.

3단계: 행동계획

3단계는 행동을 계획하는 단계로써 서로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쌓아가는 방법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고 동시에 상담자는 예비부부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동기와 진지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 서로의 문제에 대해 새롭게 이해된 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4단계: 내담자에 대한 지지

내담자들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여 고치려하고 서로의 약점을 수용하려고 하며 변화하는 시도 단계에서 긍정적 지지(positive support)는 중요하다. 특히 열등감이 강하거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5단계: 다시 돌아보기

지지와 아울러 다시 돌아보는 단계에서 상담자는 예비부부들이 점검하고 계획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도록 한다. 그래서 서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성공과 실패에 따른 대안들을 찾아갈 것인가를 알게 한다.

6단계: 종결

상담의 종결은 어떤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결혼 예비상담의 종결 단계에 들어설 때 상담자는 예비부부들에게 예고를 하며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 추후 상담과정

결혼 예비상담은 예방적 상담으로 미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다면 추후상담은 결혼 이후 적응에 초점을 두는 상담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결혼 예비상담의 목표 중 한 가지는 예비부부들이 약 6개월 동안 결혼생활을 한 후 다시 돌아와 상담자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하는 것이다. 갈수록 결혼 초 적응문제로 인한 이혼율이 높아가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추후상담을 통하여 결혼생활 적응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결혼 예비상담을 통하여 상담의 중요성이 인식된 부부들이라고 하면 계속된 결혼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상담을 하거나 상담프로그램을 소개해 줌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닫는 글

오늘날 많은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결혼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부들은 정작 아름다운 결혼식 다음에 시작되는 결혼생활의 적응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봉착 될 때 당황하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그만큼 위험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지 예방을 소홀히 하면 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기에 부담은 더 커진다. 그래서 최근에 의학계에서는 질병이나 손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예방에 대한 관심이 상담에서 급진전되어 결혼 예비 상담분야에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한국에서도 결혼 예비학교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복음주의 상담학자들을 비롯해서 상담관련 학도들이 결혼 예비상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회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도로 제시된 본 연구자의 결혼 예비상담의 제안과 임상적 결과에 따른 논의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으로는 첫째, 지금까지 기독교 결혼 예비상담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에 구체적인 연구물이 없는 실정이기에 복음주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주례를 담당할 목회자나 예비부부들의 신앙지도자 그리고 교회에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결혼 예비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 성도들이 결혼 예비상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선주.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결혼준비 프로그램". 「대한가정학 회지」 제41권 6호 (2003): 47-61.
- 김광률. "기독교인의 결혼준비 집단상담의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2.
- 김미경, 송정아.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결혼 전 상담 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 「대한가정학회」 제44권 9호 (2006): 77-87.
- 박미경.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7.
- 박부진. "가족생활교육과 심리교육을 위한 결혼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여 성 · 가족생활연구」 10집 (2006): 25-28.
- 백지은.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제 8권 1호 (2003): 1-27.
- 설은주, 이봉순. 『결혼 더 잘하고 싶으시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정미향, 김득성. "결혼 전 관계향상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 학회」 제19권 4호(2001): 69-83.
-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4.
- 정현숙.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3 권 1호(2004): 91-101.
- 추부길. 『가정사역』.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5.
- Bagarozzi D. A. and Rauen P. "Premarital Counseling: *Appraisal and Statu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81.
-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Dallas: word publishing, 1988.
- Crabb Lawrance J. *The Marriage Builder*. Grand Rapids: Zondervan, 1982.
- Deloss Friesen D. Ruby Friesen, M. *Counseling and Marriage*.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9.
- Holladay William, L.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Netheland: Leiden, 1971.
- Lee Michael .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Lincoln: Writers Club Press, 2001.
- Olson D. H. How Effective Is Marriage Preparation? *Prevention in Family Service*, Beverly Hills: Sage, 1983.
- Olson D. H. Fournie D. & Druckman J. M. *PREPARE-ENRICH Counselors Manual*, rev.ed. Stillwater Okla : Prepare-Enrich, 1980.

- Schaefer N.T. & Olson D. H. "Assessing Intimacy: The PAIR I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81.
- Smith M. *Counseling Before Marriage Makes Couples Stronger*. Family Relations, 2003.
- Swindoll Charles R. *The Strong Famil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 Taylor R. M. and Morrison L. P. *Taylor-Johnson Temperament Analysis(T-JTA)*. Los Angeles: Psychological Publication, 1966.
- Worthington Everett L. *Counseling Before Marriage*.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0.

[후주]

- 1) Charles R. Swindoll, *The Strong Famil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13-14.
- 2) Michael Lee,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Lincoln: Writers Club Press, 2001), 8-9.
- 3) Lawrence J. Crabb, *The Marriage Builder* (Grand Rapids: Zondervan, 1982), 17.
- 4) William L Holladay,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Netheland: Leiden, 1971), 150.
- 5) William L Holladay,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26-27.
- 6) 친밀한 관계는 결혼관계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성욕은 자연법칙의 일부이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제 성적 결합으로 다시 한 번 한 육체로 연합하려는 충동을 갖는 근거가 된다. 그와 같은 관능성은 연합(unite)과 한 몸(one flesh)이라는 용어 속에 나타나 있다.
- 7) Deloss D. Friesen, Friesen Ruby M., *Counseling and Marriage*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9), 176-178.
- 8) Lawrence J. Crabb. *The Marriage Builder*, 102-123.
- 9) Deloss Friesen D., Friesen Ruby M., *Counseling and Marriage*, 16-22.
- 10) 박미경,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7), 2.
- 11) 추부길, 『가정사역』(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5), 379-385.
- 12) 박부진, "가족생활교육과 심리교육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여성·가족생활연구』 10집(2006):25-28.
- 13) 백지은,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한국가족관계학회』 8(1)(2003) :1-27.

- 14) 고선주,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결혼준비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41(6)(2003):47-61.
- 15) 정현숙,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2004): 91-101.
- 16) D. H. Olson. How Effective Is Marriage Preparation? *Prevention in Family Service*, (Beverly Hills: Sage, 1983), 65-75.
- 17) M. Smith, “*Counseling Before Marriage Makes Couples Stronger*” *Family Relations*(2003): 115-126.
- 18) 설은주, 이봉순, 『결혼 더 잘하고 싶으시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16.
- 19) 정미향, 김득성, “결혼 전 관계향상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2001): 69-83.
- 20) 김광률, “기독교인의 결혼준비 집단상담의 개발 및 효과검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2002), 23-65.
- 21) 김미경, 송정아,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결혼 전 상담 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9) (2006): 77-87.
- 22) 김미경, 송정아,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결혼 전 상담 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 84-85.
- 23)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Dallas:word publishing,1988), 393-397.
- 24) D. A Bagarozzi and P.Rauen, “Premarital Counseling: *Appraisal and Statu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9(3)1981: 13-30; W.Elkin, “Premarital Counseling for Minors: The Los Angeles Experience,” *Family Coordinator*26(1977):429-43; D. G. Fournier and D.H.Olson, “Programs for Premarital and Newlywed Couples,” in Ronald F. Levant,ed., *Psychoeducational Approaches to Family Therapy and Counseling* (New York: Springer, 1986), 194-231.
- 25) Everett L. Worthington, *Counseling Before Marriage* (Texas: Word Books Publisher,1990), 173.
- 26) Gary. R. Collins, *Effective Counseling* (Carol Stream IL: Creation Houes,1972), 72-73.
- 27) 설은주, 『가정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376-378.
- 28) Everett L. Worthington, *Counseling Before Marriage*, 175-177.
- 29)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4), 323-326. Howard A. Eyrich는 Dallas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한 후 Western Conservaive baptist Seminary에서 D.Min 학위를 받았다.
- 30)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391-406.
- 31) Everett L. Worthington, *Counseling Before Marriage*, 177-185.
- 32) Deloss D. Friesen, Ruby M.Friesen, *Counseling and Marriage* (Texas: Word Books Publisher,1989), 263-280.
- 33) Everett L. Worthington, *Counseling Before Marriage*, 183.
- 34) R. M. Taylor and L.P.Morrison, *Taylor-Johnson Temperament Analysis* (Los Angeles: Psychological Publication, 1966), 77.
- 35) D. H. Olson. D. G. Fournier and J. M. Druckman, *PREPARE-ENRICH Counselors Manual*

- Stillwater, (Okla.:Prepare-Enrich,1980); D. G. Fournier,D. H. Olson, and J. M. Druckman, "The PREPARE-ENRICH Inventories," in E. E. Filsinger,ed., *A Sourcebook in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Beverly Hills, Calif.: Sage,1983): 229-50.
- 36) N. T. Schaefer and D. H. Olson, "Assessing Intimacy: The PAIR I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1981): 231-46.

【 Abstract 】

A Study on the Christian premarital Counseling of premarital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Yoon-Sun Oh
(Ph.D.,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for this study was to analyze a premarital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or Christian premarital Counseling. Premarital counseling seeks to prevent marital problems and personal conflicts that could make life miserable, difficult, unfulfilled, and unproductive after marriage.

Premarital counseling lets couples express, discuss, and realistically modify their expectations for marriage. Conflicting expectations can be seen and hopefully resolved. With the counselor's help the couple can learn that dreams for a good marriage only become reality when there is mutual giving and consistent effort. Learning like this comes slowly, but it can help couples anticipate and sometimes avoid the disillusionment that clouds the anticipated brightness in many marriages.

Premarital counseling should seek to uncover and discuss the self-centered tendencies that put strain on a marriage. The couple must be taught how to resolve differences, and they must develop both sensitivity and a willingness to accept and meet each other's needs. This involves giving freely to one's mate just as Christ gave to us. Christian counselors have a responsibility to show that premarital counseling really works and how it can be done. This involves helping people anticipate difficulties in marriage and family living them how to communicate and resolve problems effectively, and showing them how to build marriages that are lived in accordance with God's plan as revealed in the Bible.

Key words: Premarital counseling, premarital Education, Counseling Programs, communicate, Christian counselors.